

한화석유화학, 일본과 합작 중국진출

김승연 회장 일본방문 무역상사 의사 타진 ... PVC 공장 건설 구체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주간 일정으로 일본 출장길에 오른다.

김승연 회장은 일본 방문을 통해 계열사인 한화석유화학, 대한생명의 중국진출에 일본기업과 합작하는 방안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도쿄에 위치한 한화재팬에 머물며 일본의 종합무역상사 2-3곳과 생명보험회사 등을 방문해 해외진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3월22일 “김승연 회장은 무역상사 CEO들을 만나 한화석유화학의 중국진출과 관련해 합작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며, 또 생보사 방문을 통해서도 대한생명이 해외진출할 때 콜센터를 공동 설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화석유화학은 중국에 PVC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생명도 2년 전 베이징에 주재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일본일정을 마치고 이어 중국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승연 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금해제를 요청했고 3월19일 검찰로부터 출금이 풀린 바 있다.

<화학저널 2005/03/23>